

5월의 기도



나는 야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2.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4.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이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이 땅에 동성애와 이슬람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여주시옵소서.
6.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7. 이 땅에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바로 세워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각 가정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 아멘-

DCEM 성회안내

2016년 5월 6일 일본 순복음동경교회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하여 39주년 기념성회
'Happy Concert'를 산토리홀(Suntory Hall)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안희순, 오현주, 이형춘, 순복음정릉교회 조중숙목사, 정경자, 함석숙,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하나님의 때와 방법

1964년 테레사 수녀(Mother Teresa)는 기자회견을 통해 인도 켈카타에 큰 고아원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금된 돈이 굉장히 많은가요? 어떻게 그렇게 큰 고아원을 세웁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자신이 가진 돈 3실링, 우리 돈으로 말하면 300원을 내놓고 “이것이 내가 가진 돈의 전부입니다.”라고 하자 기자들이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습니다. 농담하는 줄 알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현재 그것뿐이지만 예수님께 맡기면 어떤 기적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테레사 수녀는 3실링을 들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물질을 통해서 수많은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고아원을 짓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결과에 3실링으로 사랑의 선교회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놀라운 결과를 얻고 전 세계의 호응을 받아서 그 3실링을 가지고서 130여 국에 600개의 고아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돈 300원 정도로 시작하여 600개의 고아원을 세워 180개 국가에서 고아를 돌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변치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라는 주의 말씀은 오늘날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늦게 응답된다고 생각되고 기다리기가 힘들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절묘하신 지혜로서 이루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을 벗어 주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이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이 사랑과 행복을 만인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하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April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한국의 성령운동 대만,중화권 교회 일으키다

축복과 기적으로 인도하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대만 대성회



축복과 기적으로 인도하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대만 대성회가 대만 남단의 항구도시 가오슝 시 가오슝스타디움에서 개최됐다. 조용기 목사는 4월 6일과 7일 각각 열두 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여리고성의 맹인 바디매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떠한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꿈과 희망을 갖고 기도하라”며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불안정한 정치상황, 지진이라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고통과 좌절 가운데 빠진 대만 현지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특히 조용기 목사는 세계적인 신학자 몰트만 박사와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하며 세계대전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비롯해 모든 것을 잃고 자살을 꾀했던 몰트만과 폐병으로 죽음을 앞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겨 고통과 좌절, 죽음에서 벗어났음을 고백했다.

또한 “열두 해 혈루증 걸린 여인도 주어진 환경 속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속에 희망이 생겼다”며 “이처럼 예수님

이 마음에 들어오면 희망을 얻게 된다. 병든 자는 치료받는 희망이 생기고, 저주받은 자는 축복받는 희망이 생긴다. 돈이나 직장, 정치가 새로운 희망을 주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하룻밤 만에 사라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신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용기 목사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며 그냥 기도하지 말고 “희망 속에서 꿈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마음에 생기고, 그 믿음으로 눈에 아무 증거 안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입술로 고백할 때 반드시 그 꿈을 내 것으로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설교 후 결신의 시간에는 수많은 새 신자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삶에 꿈과 희망을 품고 살기로 작정했다. 이어 조용기 목사가 신유를 선포하자 많은 성회 참석자들이 치유 받았음을 고백했다. 특히 조우 시창 성도는 “교통사고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지만 오늘 조용기 목사님의 고백처럼 꿈과



희망을 품고 기도할 때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며 보조기구나 동행한 아버지의 도움 없이 혼자 걸어 보이며 자신을 치료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밖에도 많은 참석자들이 어깨와 허리, 무릎, 호흡기질환 등 통증과 질환들이 사라졌음을 고백했다.

이번 성회를 주관한 DCEM(시가끼 시계마사 목사)과 성회를 주최한 대만 에스라사역연구소는 이번 성회에 이틀간 연인원 2만여 명이 참석해 대만 가오슝 기독교 역사상 최대 인파였다고 전했다. 복음화율이 5%에 불과한 대만임을 감안할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인원이었다. 이번 성회 및 컨퍼런스 대회장과 통역을 맡은 장한업 목사(순복음대만총회 총회장)는 “모든 행사가 성료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소감을 전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중략)...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예레미야 33장 3~9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우리는 자신의 명함을 간직하고 다니다가 누군가를 만나 자기소개를 하게 되면 그 명함을 꺼내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는 일을 행하는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사람들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직접 보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대자연에 들어진 나뭇잎사귀, 풀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스스로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의 죄를 큰 소리로 회개하는 것입니다(사 59:1~2).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6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 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고 했습니다.

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늘 하나님께 와서 간구하되 마음에 간절한 호소를 가지고 오래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말할 수 없이 행했던 엘리아조차도 기도할 때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삶에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2.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목회를 시작한 전도사 시절 성도들에게 “철야기도 하라. 새벽기도 하라”며 그들을 교회에 불러다놓고 기도를 함께 했는데, 정작 전도사인 나는 몇 마디 기도하면 다음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가만히 보니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기도하러 왔는데 그분은 기도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의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분 뒤에서 기도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무슨 기도가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뿐입니까?”라고 묻자 그 장로님이 “전도사님, 나는 6.25전쟁 때 북한에서 자식들 데리고서 죽음의 고비를 겪고 남한에 내려와 지금은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겪은 모든 일을 말할 하면 하나님이 귀찮게 되실 것입니

다. 하나님은 내가 걸어온 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그저 감사할 것 밖에 없어요.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일은 좋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하므로 그저 감사할 것 밖에 없습디다”라고 하시더니 또 꿇어 엎드려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상당히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기도할 것이 없으면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무엇보다 뚜렷한 목적과 그 목적을 향한 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 낫기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설처럼 꾸며내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귀찮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면 “야~들었다. 들었다. 고쳐주겠다!”고 하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3.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기도의 진실성을 시험해 보시고자 응답을 늦추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나, 아니면 간절함에 진실한 마음으로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이것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림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생활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인생에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오지만, 날마다 나를 돕는 보혜사 성령이 지금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좇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은 즉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대만성회와 목회자 컨퍼런스 이모저모



◎ 대만교회 연합, 조용기 목사에게 공로패 전달

4월 5일 성회에 앞서 대만 가오슝 한센국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환영 및 감사 만찬이 열렸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비롯한 중화권 목회자와 조용기 목사의 제자, 우리 교회 장로 및 성도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환영사를 통해 장마오송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이 지난 30년간 대만교회 성장의 끼친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강조하며 조용기 목사의 영성을 닦기 위해 ‘조용기목사학교’를 설립하고 늘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린 목사는 “가오슝 교회들을 대표해 조용기 목사의 3번째 방문에 감사 드리고 이번 성회를 통해 대만교회에 더 큰 은혜와 기적이 있을 것 같다”며 자신이 경험한 치유, 교회성장, 교회건축의 은혜를 중화권 교회들 모두 체험하길 바란다고 참석하신 모든 교회와 관계자들을 환영했다.

만찬 후 조용기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절대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역시 희망의 메시지다”라고 강조했다.

◎ 대만성회 성공적 개최 배경엔 기도 용사들이 있었다

이날 장마오송 목사는 대만교회 성장에 대한 공로를 세운 조용기 목사에게 감사사를 전하며 대만교회들을 대표해 공로패를 조용기 목사에게 전달했다.

이번 대만성회와 목회자 컨퍼런스에는 중화권 목회자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평신도 리더들이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은혜의 현상이었다. 이런 성공적인 성회 개최를 두고 성회준비를 했던 관계자들은 이번 성회가 ‘기도로 일군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성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악재가 있었다. 대만의 총통 선거로 인한 정치불안정과 올해 초 가오슝 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으로 목회자 컨퍼런스 사전 등록자가 두 달 전까지 200여 명이 못됐다. 이에 6개월 전부터 행사를 준비하던 대만 에스라사역연구소 관계자 및 중화권 목회자들은 자체적으로 기도회를 갖고 이번 성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성회 3주 전 2000여 명의 목회자 및 평신도리더들이 등록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에 관계자들은

이들이 목어야 할 호텔을 급히 섭외하느라 행복한 비명을 질러야만 했다. 기도의 중요성을 또 한번 체험한 이들은 성회 당일까지도 ‘기적의 기도회’를 갖고 성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일구었다.

◎ 아시아 전역에서 조용기 목사 지원 위해 대만 가오슝 집결

이번 성회의 주강사인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응원하기 위해 한국은 물론 일본과 대만의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 성도들이 대만 가오슝을 찾았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DCEM 사무총장이자 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는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를 비롯하여 김종복 장로, 김영도 장로와 허순범 장로, 안정복 장로 및 동북아선교회와 중국남방선교회 소속 장로 등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과 선교회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조용기 목사의 제자들인 김용준 목사(순복음도봉교회), 김경문 목사(순복음중동교회), 순복음일본총회 총회장 김유동 목사를 비롯한 총회임원들, 순복음대만총회 소속 선교사 등도 참석해 스승을 응원했다.

◎ 조용기 목사 대만 기독교매체 크리스천 데일리와 인터뷰

대만에 영향력 있는 기독교매체 크리스천 데일리는 4월 7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 매체는 조용기 목사의 이번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성회와 관련해 질문하며 4차원영성,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성령운동 그리고 대만교회의 비전과 중국 대륙선교의 비전 등에 대해 질문했다.